

## 연구원 소식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전발전연구원 최우수기관

대전발전연구원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07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17개 대상기관 중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과 함께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시도별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에서 지방연구원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영분야(가중치 37), 연구분야(가중치 50) 및 고객만족도분야(가중치 13)로 배분하여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평가지표별 주요평가 내용을 산식에 근거하여 점수화 한 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지자체출연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평균은 87.21점으로 4가지 등급에서 우수에 해당한다. 분야별 평균은 경영분야 34.73, 연구분야 44.86, 고객만족도분야 7.62로 가중치별 만점 대비 경영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취득한 반면, 고객만족도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경영분야 34.3점, 연구분야 47.86점, 고객만족도 분야 10.39점, 총점 92.62 점으로 각 분야별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경영평가 점수인 76.125점에서 16.495점이 상승한 것으로 획기적인 연구원 경영혁신의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에 대한 상호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 대전시장 연두방문

2월 2일 박성호 대전시장, 김홍갑 행정부시장, 김일토 경영법무 담당관 등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원은 2008년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발전과 한계를 짚어보고 연구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이를 통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원의 2009년 계획을 발표한 후 이번 연두방문에 참석한 대전시장, 행정부시장, 경영법무 담당관과 우리원 연구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육동일 원장은 연구원의 수준이 대전시의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절실함을 당부하였다. 이에 박성호 대전시장은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선포한 대전발전연구원은 효율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 하여야 하는 것과 연구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정책 대안과 현안과제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프로젝트 단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대전 이전기업인 초청 환영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2009년 2월 25일 수요일 대전 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대전 신규 이전기업” 대표와 경제관련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신규 이전 대상기업과 대전광역시 간의 MOU 체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이미지 고취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정홍보물을 시청하고, 박성효 대전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뒤를 이어 (주)하이엘리더스투모로우, (주)메드론, (주)아세아 정보테크, KT텔레잡 관제센터와 대전광역시 간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가이드북을 전달함으로써 기관과 기업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대전광역시의 신규 이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서비스 지원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본 간담회는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 등 기업관련 인사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이전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강화, 그 외 관련 기업체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9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는 지난 3월 12일(목)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2009년 첫 번째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상반기, “생애주기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제로 총 4회의 시리즈 포럼을 기획하고 있는 대전가족공동체포럼 운영위원회는, 그 첫 번째 포럼을 유아·아동기 장애인가족 지원에 초점을 두어 개최하였다. 대전시의 5개 구, 교육청의 장애인 및 가족 복지 담당 공무원, 연구자 및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가족 관련 사업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장 및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유아·아동기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우송정보대학의 이채식 교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의 생애주기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 및 아동기 장애인의 생활환경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주제발표 뒤에는 장애아동을 양육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사례발표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및 가족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모든 발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one-stop서비스와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제안하였다.

포럼에서 발표·논의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의 가족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여성정책연구부의 연구구성사업 관련 자료는 대전발전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jdi.re.kr>)에서 볼 수 있다. 2차 포럼은 4월 20일 경 개최 될 예정이며, 문의사항 및 참석 신청은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042-530-3522)로 할 수 있다.

## 제7차 창조도시포럼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창조도시포럼은 2009년 3월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창조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병수 교수의 「창조산업과 창조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주제발표 후에는 신천식 박사(대전대 객원교수)의 사회로 신동호 단장(대전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임윤택 교수(한밭대학교), 황혜란 박사(대전발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창조도시 대전의 창조산업의 육성과 지역 어메니티 구축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월 24일 직원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직원특강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강병호 원장의 전문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을 듣고 영화관람과 시설투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강병호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최첨단 설비와 더불어 촬영부터 후반부 작업은 물론 시사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쌍화점의 촬영지로 관심이 높아진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400여편의 드라마와 45편의 영화가 진흥원의 힘을 빌어 제작되기도 하였을 만큼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원의 직원들이 영화를 관람한 시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 후 작업실에서 CG 작업을 마친 최종작품을 시연하는 곳으로 진행된 작업들이 원하는 만큼 표현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한다. 시사실은 HD급의 4배이상의 화질이 구현 가능하며 음향 또한 7.1 채널로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날 육동일 원장은 CT(Culture technology)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번 직원특강을 통해 대전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직원특강을 마무리 했다.

